불자 세상보기

명품보다 자신의 내면을 채워라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센터 원장

과시적 소비로 인해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오르는 '베블렌 효과'가 한국을 덮고 있다.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는 미국의 사회 · 경제학자 베블렌(Veblen)의 주장이 허영심에 기반한 과시욕의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억' 소리 나는 물품들이 '한정판'으로 걸리면 노숙까지 불사하는 '민폐형 명품족'들이 등장해 싹 쓸어가니 외국 브랜드 회사들의 배짱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에 개소세를 인하해서 명품 값을 내리겠다는 정부 시책이 2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일이다. 명품회사들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제품의 값을 안 내렸기 때문인데 이번 일을 두고 혹자는 '글로벌 호구'라는 용어를 써가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이 장기 불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럭셔리 사치품 시장은 별개인 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 공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디드로 효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허감 속에서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다른 물건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증폭해서 생기고 나중에는 구입한 물건 자체가 심리를 지배함으로써 거의 중독 수준에서 연쇄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중생이 욕망에 젖어 넋을 잃음은 마치 덧에 걸린 토끼와도 같나니"라는 비유를 통해 중독현상을 경계하고 "그들은 욕망의 족쇄에 얽혀 있어 한량없는 둑카(고통)을 받고 또 받는다."고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결국 어리석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마침내 자신을 삼켜버릴 지경에 이르면 그 결과는 황폐화한 사고와 메마른 정서 뿐인 것이다.

공허감은 '텅 빈 듯한 허전한 느낌'을 말하고 그 텅 빈 마음에 좋지 않은 바람이 든 것이다. 〈선가귀감〉에 나오는 8풍의 경계에 걸린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예(譽), 칭(稱), 락(樂)의 바람과 관련이 깊다. 예(譽)는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라는 헛바람이다. 비싼 것을 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모한 소비를 시도한다.

칭(稱)은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거라는 헛바람이다. 럭셔리한 물품을 본 사람들이 물품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VIP대접을 해줄 거라는 착각으로 정신은 이미 혼미하다.

락(樂)은 즐거움의 헛바람이다. 한정품을 소유했다는 생각이 감정의 흐름을 왜곡하여 쾌락 속으로 몰고 간다.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한 바람은 조금씩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시비비를 판단할 정견의 뿌리를 잘라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적 공허감으로 인한 무모한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야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공(空)으로 '바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라'고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비싼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공허감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큰 지 '바로 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01년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 쿡스에 의해 진행되어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로 정리되어 발표되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우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심리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신체적으로 불면증과 만성 통증이 완화되고 있다.

명품공화국이라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열차에서 내뿜는 공허감의 매캐한 연기를 멈추는 것은 보시바라밀의 강력한 정화작용이다. 바라밀의 계속은 질주하는 모든 것을 멈추어 제자리로 돌리는 회복의 도피안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명품 백 대신에 명품 빵으로 충만한 텅빔의 진정한 행복을 나누자.

정주영과 불교

올해 11월 24일으로 현대그룹 창업주 故 아산 정주영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기념학술연구를 맡았던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정주영 회장의 1982년 특별훈시 내용을 본지에 보내왔다. 정주영 회장은 훈시에서 원오극근 선사의 어록을 인용하며 현재를 살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을 일궜던 정주영 회장의 훈시 내용 일부를 발췌 · 정리했다. 〈편집자주〉

게으름은 인생의 녹, 항상 매진하라



12세기 중국의 선승으로써 원오 극근 선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재로 쓸 정도로 한국 불교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야전기현(生也全機現) 사야전기현(死也全機現).'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살 때는 삶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또한 죽음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는 삶에 철저 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철저해서 그 전부를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도 유감없이 마음껏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양상입니다.

또한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미련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중간히 반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철저할 때는 털끝만큼도 기분 나쁜 죽음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 것도 내 자신의 일이고, 죽은 것 또한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 때는 철저하게 살고 죽을 때는 또한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력을 다해서 살아야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신속하게 물러나와 버려야 돼요. 꽃은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생과 사를 물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 하는 것, 자기 인생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생야전기현(生也全機現) 사야전기현(死也全機現).' 살 때는 삶에 철저하게 그 전부를 살아야 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서 전부를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한테 남겨요. 그때 이제 남긴 말이 무어냐 하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간단해요. 80년 동안 살면서 성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치고는 너무나 평범해. 평범한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질서에요. 우리 마음도 변하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생산적으로 변하느냐. 창조적으로 변하느냐.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움직인다. 모든 것이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 이것 굉장한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하는 최고의 악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것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게으름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는가? 습관과 함께 시작돼요. 본래부터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게으름이란 누룽지가 생긴 것이지. 본래부터 게으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악덕은 습관과 함께 시작됩니다. 습관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느냐. 녹이에요. 아무리 강한 호미 강철을 지녔다 하더라도 게으름의 습과, 게으름의 악덕, 이것이 녹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총명한 밝은 지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심성을 지녔다하더라도 게으르게 되면 그것이 녹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죽음이 닥칠지 누가 압니까? 내일 큰 재난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이고 내 과제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생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산, 「특별훈시」, 1982. 10. 28

社說

화합·상생, 종교가 아름다운 이유

남북 종교계 지도자들이 북한 금강산서 평화 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측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호텔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남측 KCRP 회원 150명과 북측 조종협 회원 50명이 참석했다. 남북 종교인들이 대규모로 한데 모여 모임을 가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경색된 남북 불교교류가 이처럼 새롭게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0월 15일 신계사 복원 8주년 기념법회부터이다. 이 자리에서 남북 불교 지도자들이 오랜만에 합동법회를 열며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금강산서 가진 종교인 회동도 신계사 합동법회의 연장 선상서 이뤄진 쾌거라고 볼 수 있다. 평화를 소중히 가꾸고,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해 통일의 씨앗을 싹틔우는 것은 종교인들의 사명이다.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면서 애국애족의 마음과 남북 선언에 기초해 종교인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된다면 평화통일도 먼 장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종교화합의 분위기는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종로 지역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서울 금선사 · 서울교회 · 세검정성당 · 원불교사직교당은 11월 11일 금선사에서 '제3회 종로 지역 종교인 문화마당'을 개최했다.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지구의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종교인들이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상생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리는 의미가 깊다. 종교가 아름다운 이유를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지도자들의 사명인 것이다.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한국불교 화두

조계종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초자료 수집과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가 올해에만 3번에 걸쳐 진행 중이며 내년 등재신청서 작성과 2017년 등재 관련 실사 등도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24일에는 공주 마곡사에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4일에는 '한국 전통산사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에 대한 국내 석학들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7개 대상 산사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11월 20일에도 '불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2차 국제학술회의가 순천에서 열린다. 불교 유산이 주제인 만큼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유산들의 역사적 배경,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세계유산 등재 후 현황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특히 1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외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산사에 대한 답사를 진행해 '한국의 전통산사' 등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입지와 경관을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통산사는 세계문화유산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만큼 등재 사업을 추진해 2018년 등재의 쾌거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